

EVE SUH

2021 MFA at Hongik University, Ceramics (Seoul, Korea)
2016 BFA at University of Seoul, Environmental (Seoul, Korea)

Solo Show

2023 서어른 30 / Q Archive (Seoul, Korea)
2021 Adrift by Choice / WWW SPACE (Seoul, Korea)

Public Collection

2022 SAAMOORAM (Seoul)
2020 Dakshina Chitra Museum (Chennai, India)
2019 Yingge Ceramics Museum (Yingge, Taiwan)

ソ・イブ

2021 弘益大学校一般大学院陶芸専攻 卒業 (ソウル・韓国)
2016 ソウル市立大学校環境彫刻学科 卒業 (ソウル・韓国)

Solo Show

2023 ソオルン 30 / Q Archive (ソウル・韓国)
2021 自発的漂流 / WWW SPACE (ソウル・韓国)

Public Collection

2022 ソウル サムラムSAMOORAM (ソウル・韓国)
2020 インドDakshina Chitra美術館 (チェンナイ・インド)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ソ・イブ 展 / キャンプファイヤー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EVE SUH
SOLO EXHIBITION

キャンプファイヤー
CAMPFIRE

Marunuma Art Park
2023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3

2023年11月17日(金) - 19日(日)



ミノタウロスをご存知だろうか。ギリシャ神話の中で牛の頭を持ち、生贄を喰らうとされている怪物である。一方でその容姿と暴力性から迷宮に幽閉され、孤独と共に生き、やがて最後には英雄テセウスに退治されてしまう。後世、多くの文学や美術作品にも登場し、人々を魅了し続けるのである。Eve Suhもそんなミノタウロスの物語に共鳴する一人である。

洋の東西を問わず、古代から、ドラゴンや幻獣、魔物や巨人など、実に様々な怪物を人間は創作してきた。異形であり不可解、恐怖の象徴など、おおよそ負のイメージを想起させる怪物は、それぞれの姿は異なっている、ひとつの共通した抽象的な意味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古びてもいない、むしろ今の時代を生きる我々に通じる孤独や閉塞感、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や相互理解の難しさ、近代の合理的な世界観の行き詰まりといったものとも決して無縁ではないだろう。

15回目を迎える丸沼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作家であるEve Suhは我が強く、手間のかかる子供だったとその幼少期を振り返る。人形遊びが好きで、成長とともに他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ギャップに戸惑いながらも自らを演じる術を身につけていったという。大学では彫刻と陶芸を学んだ。現在はその技法を活かし、主に塑造による具象表現を焼成によって形づくっている。陶による表現は、手跡と色彩から温かみが感じられ、その複雑な美しさは時代を超えて後世の人々と共有できる普遍性を持っている。一方で、中身が空っぽで、非常に割れやすいという性質もある。そういった2面性に強く惹かれると作家は言及する。



Manga girl × Futakuchi onna
20×19×48(cm), ceramics, 2023

一見すると情緒的に見えるEve Suhの作品世界には社会を透かし見る視点がある。それは彼女がいかにして作品たちに演じさせるかを熟考している冷静な演出家だからである。そっと近づいてその作品をよく見てほしい。知恵の実を食べ、楽園から追放された不器用な表情が見てとれるはずだ。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ミノタウロスを 알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소머리를 하고 제물을 먹는다고 알려진 괴물이다. 결국 그 외모와 폭력성으로 미로 궁전에 갇혀 고독하게 살다가 결국 영웅 테세우스에게 퇴치되고 만다. 후세에도 수많은 문학과 미술 작품에도 등장하여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다. 서이브도 그런 미노타우루스의 이야기에 공명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드래곤과 환수(幻獸), 마물(魔物)과 거인 등 실로 다양한 괴물들을 인간은 창작해 왔다. 이형으로 불가사의하며, 공포의 상징 등등, 대체로 음지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괴물은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추상적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들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통하는 고독과 폐색감, 진정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의 어려움, 근대의 합리적인 세계관의 막다른 골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5회째를 맞이하는 마루누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작가인 서이브는 고집이 세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인형놀이를 좋아했고, 성장과 함께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차이에 당황하면서도 스스로를 연기하는 법을 익혔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조각과 도예를 배웠다. 현재는 그 기법을 살려 주로 소조에 의한 구상적 표현을 하여 가마소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녀의 흙을 통한 표현에서는 손자국, 색채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복잡한 아름다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후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형태의 속이 비어 있어 매우 깨지기 쉽다는 성질도 있다. 그런 양면성에 강하게 끌렸다고 작가 본인은 말한다.

언뜻 보기에 정서적으로 보이는 서이브의 작품 세계에는 사회를 투시해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작품들에게 어떠한 연기를 시킬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는 냉정한 연출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살면서 다가가서 그녀의 작품을 유심히 보았으면 한다. 지혜의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 서투른 그 표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경조형대학교 교수
오하시 히로시



Harajuku girl × Kitsune
23×16×63(cm), ceramics, 2023